

100석 소극장, 직접 제작한 영화도 상영합니다

문화창고 ‘아트시네마’

국내외 예술영화관을 찾아서



5 ‘대전아트시네마’

‘시네마테크 대전’서 출발

고전·제3세계 영화 상영 중점

제작·비평 워크숍 정기적 개최

극장 소재 ‘꽃의 왈츠’ 첫 영화



지난 2007년 문을 연 대전아트시네마는 예술영화 상영과 함께 자체적으로 영화도 제작하고 있다.

대전역 인근 구도심에 위치한 대전아트시네마에 들어서면 오래된 카페에 온듯한 느낌이 든다. 낡고, 약간은 촌스러운듯한 분위기. 무언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1000여장이 넘는 DVD와 책 등이 꽂힌 책장 앞의 긴 탁자는 간단한 자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자 티켓 예매창구 역할도 한다. 영화 제작에 사용하는 조명 기구와 카메라, 오래된 영화 포스터가 소품처럼 자리하고 있다. 봉준호 감독, 김영진 평론가 등이 다녀갔던 개관 1주년 기념 행사 포스터도 눈에 띈다.

대전아트시네마는 지난 2006년 문을 열었다. 그 중심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네마테크 대전에서 활동한 해운 강민구 대표가 있다. 시네마테크 영화제를 하면서 매번 상영관을 찾는 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다. ‘안정된 상영 공간의 확보’. 어쩌면 무모하다고 볼 수 있는 민간예술영화관 개관은 거기서 출발했다.

시작은 대전 신시가지인 서구 월평동 옛 선사시네마(196석)였다. 하지만 영화관이 있던 건물에 노인병원이 들어서면서 이전을 해야했고 1년만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넓은 건물 3층에 위치한 대전아트시네마는 당초 동보극장이 자리했던 공간으로 200석 규모를 100석으로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다. 대전 지역 유일의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역할을 해오던 아트시네마는 2014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관 지원사업에서 탈락하고, 멀티플렉스가 예술영화관을 운영하면서 관객이탈도 심화



오래된 카페처럼 느껴지는 대전아트시네마에는 1000장의 DVD가 갖춰져 있다.

되는 등 고전했지만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고 여전히 영사기는 돌아가고 있다.

1년 관람객은 약 9000여명 수준. 시네마테크에서 출발한 아트시네마의 정체성은 상영작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예술영화 관객층이 청년층에서 중년 여성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많은 영화인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영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데 반해 아트시네마는 다른 어떤 극장보다 ‘마이너한 프로그램’을 상영한다. 요즘 유행하는 흥행 재개봉작 대신 영화사에서 길이 남을 ‘진짜 고전영화’와 제3세계 영화, 다양한 프랑스영화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대전 아트시네마는 교육청과 연계해 어린이 관객들이 어른 관객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전문화재단과 함께 ‘아티언스 대전’ 페스티벌 기획 중 하나로 ‘위대한 상상 : 영화가 바라본 과학’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시네마테크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제작워크숍과 비평 워크숍도 진행한다. 관객들은 자발적으로 한달에 한번 일요일 오후 함께 모여 영화를 관람하는 ‘대전아트시네마 밴드’도 운영중이다.

대전 아트시네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 영화를 제작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아트시네마 10주년 영화제에서 선보인 첫 작품은 ‘꽃의 왈츠-극장전 파트 1’이었다. 30분 분량의 영화로 제작비는 700만원 정도가 들었다. 강 대표가 감독, 각본, 촬영, 출연했고 지역의 연극배우, 극장이 진행한 연극 워크숍 등에 참여했던 이, 조원환들이 참여했다. 올해도 현재 두번째 작품을

준비중이다.

“각 극장이 자기만의 독특한 콘텐츠가 없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건 힘들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극장에도 배급해 ‘대전아트시네마’의 콘텐츠를 확장시키는 것도 필요하구요.”

강민구 대표는 “영화관 운영은 어렵지만 한국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화를 제작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다”고 말했다.

대전아트시네마는 시네마테크 대전, 협동조합 ‘마을극장 봄’, ‘소소유랑극장’과 한몸처럼 움직인다. 소소유랑극장은 영화 제작 교실, 영화 비평 등 강좌와 함께 배급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아트시네마의 영화 제작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협동조합 ‘마을극장 봄’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영화관 운영에 참여하는 거죠. 극장에서 어떤 영화를 틀고, 그 영화를 통해, 또는 함께하는 관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화합반응을 일으키는 과정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대전아트시네마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충호 개인전

전남대병원 갤러리 30일까지

김충호 작가가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림) 1층 로비 CNUH 갤러리에서 ‘그리움’을 주제로 30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시골 풍경과 꽃 등을 화려한 빛깔과 섬세한 표현으로 담아낸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은 캔버스에 물을 뿌리고 그 위에 물감을 떨어뜨리는 기법으로 제작된 게 특징이다.

작품 ‘향’ 시리즈는 은은하게 번진 녹색 바탕 위에 붉은 매화를 또렷하게 묘사하며 시선을 집중시킨다. 둥글게 퍼진 하얀 물감은 제목처럼 향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비유했다. 화면 아래에는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을 배치해 우리네 어머니가 새벽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김씨는 개인전 9회, 단체전 300여회를 가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협회원·광주전남수채화협회 회원·노적봉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0-510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향’

오르세 미술관 세잔·모네 작품 감상

‘인문지행’ 문화행사…20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이 주최하는 문화예술기획 행사가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세계의 미술관 작품들을 매월 1회 시민들과 함께 감상하는 자리로 이번 강좌에서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품 중 세잔과 모네의 작품을 살펴본다.

20세기 회화의 시작을 알린 화가라는 평가를 받는 세잔의 작품으로는 ‘바구니가 있는 정물’



세잔 작 ‘바구니가 있는 정물’

그밖에 시슬레, 르통, 모리조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가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인문지행(cafe.daum.net/h-arete).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영성·박석규·송웅·박동인·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운대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11(화)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쏠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 기간: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간: 2년 / 분양권 일주일 내에 시 약 6% 할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는 고객센터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행사를 무료로 베풀어 드립니다.

E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RESORT
소노밸리채 승마클럽	가치 미려한 배	비밀디파크 대종골프장(24시간) 리조트 및 4가지 유쾌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가면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성수기 주중 50% 비수기 주중 무료	대형 회원 요금의 50%

산토리니풍의 하얀 쏠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

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쏠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709실)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포바즈 네트워크 광주점

김성훈한의원

Yellow ID TALK @ 포바즈광주점 친구추가 하세요.

안면비대칭 턱관절장애
원다리교정 체형교정

www.epocrates.co.kr

두암타운사거리

☎(062)263-8275

NAVER 김성훈한의원 검색